

## 금감원장 대행 임직원 당부사항 (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)

-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6.9일(월)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새 정부 출범 후 경제·금융여건을 점검하고, 대응방안을 논의
  -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'25년도 0%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,
    -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,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,
    -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\* 상태이며, 우량·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되어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으로 평가하였음
- \* PBR('25.5월): (韓) 0.8 vs (美) 4.8 (日) 1.5 (중국) 1.5 (인도) 4.0 (대만) 2.6
- 이에 이세훈 원장 대행은 빠른 시일내에 경기를 회복하고 시장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금융관행·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실행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,
    - 신임 원장 임명 전까지 임직원 모두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밀히 대응하면서,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음
    - 특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 현황을 정밀 점검하여 필요한 자금공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,
      - 시중의 유희자금이 안정적인 예대마진 위주 부동산 금융에서 벗어나 자본시장과 생산적 분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금운용 규제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음